

## 중국 섬유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들의 경합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박 훈

(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hoon@kiet.re.kr

### 〈요 약〉

중국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업체들에 기회의 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업계는 경쟁국은 물론 후발 개도국들과의 경쟁 심화로 중국시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저가품 시장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도 차별화 소재에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추진할 질적 고도화 정책도 우리 섬유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중국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신기술·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력 미흡 등으로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섬유산업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을 극복하고 대만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1. 문제 제기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섬유 수출의 19.8%(2010년)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전체 섬유 해외투자의 62.9%(2010년 말 누계)를 차지하

는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의류 내수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의 품질수준 향상 및 첨단 산업용 섬유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차별화 섬유소재 및 고기능성·

고성능 소재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섬유업체들에 기회의 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확대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섬유업체의 중국시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섬유수입 실태,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들의 경쟁실태를 분석한 다음, 우리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중국의 섬유수입구조 분석

### □ 중국 수입, 지난해부터 높은 증가

중국은 세계 섬유제품 생산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 최대의 섬유소재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 섬유소재 수입규모는 2010년 현재 세계 전체 수입액의 13.9%(178억 달러)로 2008년보다 4.2%포인트 상승하였다. 중국은 천연섬유원료 및 천연섬유사의 세계 최대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수입액의 44.8% 및 24.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또한 화학섬유와 직물도 세계 전체 수입액의 13.5% 및 12.6%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수입국이다.

중국 섬유수입은 2009년까지 낮은

증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섬유수입 증가율은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의 낮은 수준에서 2010년에 전년대비 19.9%로 높아진 데 이어 2011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비 19.5%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섬유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경쟁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제품에 비해 향상된 데 기인한다. 여기에다 중국 섬유제품의 품질 수준 향상과 함께 이탈리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고부가가치·차별화 섬유소재 수입이 늘어난 것도 수입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고급 패션의류 소비 증가도 수입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품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의류가 고급 패션의류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고급 패션의류 수요 증가로 이탈리아로부터의 의류수입이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7.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에도 각각 36.0% 및 63.2%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섬유소재 수입도 의류 수출 회복과 함께 지난해부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섬유사, 면직물, 화섬장 섬유직물, 산업용 섬유직물이 높은 증

〈표 1〉 중국 섬유산업의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5	2009	2010	2011 상반기	연평균 증가율		
						2000~09	2010	2011 상반기
화섬원료	1,447	1,898	1,432	1,827	1,098	-0.1	27.6	27.1
섬유사	2,814	4,093	4,305	5,644	3,031	4.8	31.1	14.6
견사	11	11	7	6	2	-4.5	-17.8	-6.2
모사	208	216	159	183	147	-2.9	14.8	29.8
면사	952	1,697	2,354	3,212	1,641	10.6	36.4	11.5
화섬장섬유사	1,060	1,622	1,325	1,693	922	2.5	27.7	17.3
화섬방직사	487	466	401	467	269	-2.1	16.4	14.3
직물	9,476	10,279	9,334	10,331	5,300	-0.2	10.7	11.0
견직물	113	117	97	104	46	-1.6	7.6	-0.2
모직물	499	536	440	485	252	-1.4	10.3	29.2
면직물	1,751	2,159	1,676	1,697	863	-0.5	1.3	11.5
화섬장섬유직물	2,583	2,152	1,885	2,089	1,051	-3.4	10.8	11.2
화섬단섬유직물	1,177	893	682	726	378	-5.9	6.4	17.1
편직물	1,339	1,879	2,138	2,345	1,179	5.3	9.7	7.2
기타 직물	1,913	2,390	2,344	2,821	1,501	2.3	20.3	10.2
의류	1,136	1,511	1,651	2,234	1,489	4.2	35.3	72.0
기타 섬유제품	367	754	990	1,192	683	11.7	20.5	22.5
섬유소재	13,737	16,269	15,071	17,802	9,430	1.0	18.1	13.9
섬유산업 전체	15,240	18,535	17,712	21,228	11,602	1.7	19.9	19.5

자료 : KOTIS Database(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가를 견인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편직물은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과 함께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수입을 대체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머물렀고, 견사·견직물도 일부 고급소재를 제외한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누에고치 생산량의 7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 미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태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중국의 섬유수입은 고부가가치·차별화 소재를 중심으로 미국과 이탈리아로부터, 그리고 중저가·범용품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태국으로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우선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범용

〈표 2〉 중국 섬유산업의 주요 국가별·품목별 수입증가율 현황

단위 : %

		화섬원료	섬유사	직 물	의 류	기타제품	섬유소재	전 체
한국	2000~09	-11.2	-3.0	-3.2	6.9	2.9	-4.0	-3.5
	2010	36.6	34.9	10.6	39.3	13.1	15.5	16.4
	2011. 상	1.2	30.2	9.8	6.6	10.0	11.7	11.3
대만	2000~09	-2.5	1.9	-3.6	-2.3	2.1	-2.2	-2.1
	2010	13.3	14.3	14.4	6.9	30.0	14.3	14.5
	2011. 상	10.6	3.8	12.5	22.2	-5.9	9.8	9.5
일본	2000~09	-2.6	2.1	-1.1	-10.9	9.7	-1.0	-1.1
	2010	44.0	34.2	8.0	9.1	16.8	13.8	13.8
	2011. 상	35.8	21.4	16.8	17.6	9.1	19.7	18.8
미국	2000~09	13.5	8.0	15.7	9.5	15.2	13.6	13.7
	2010	12.7	112.9	22.4	38.9	28.0	25.4	25.9
	2011. 상	27.4	68.7	4.9	20.4	21.4	24.9	24.4
이탈리아	2000~09	-30.6	5.3	12.0	37.6	30.5	7.9	14.2
	2010	58.8	3.9	20.5	36.0	17.8	17.3	24.9
	2011. 상	20.1	30.8	33.4	63.2	14.5	32.8	44.0
태국	2000~09	-0.8	8.4	13.8	51.9	28.4	8.1	10.6
	2010	65.8	37.6	20.6	28.9	70.4	34.1	37.0
	2011. 상	91.2	27.2	1.3	78.0	17.2	25.0	29.8
인도네시아	2000~09	10.1	-0.8	-1.4	26.3	31.4	-0.4	1.2
	2010	157.7	55.8	24.5	44.7	118.0	55.1	56.7
	2011. 상	149.8	0.5	6.7	132.4	79.3	20.6	31.5

자료 : KITA Database(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섬유소재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범용품의 수입을 줄이는 대신, 자국 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부가가치·차별화 소재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용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지닌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든 반면, 미국, EU 등지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의 높은 수입증가 시에도 이탈리아, 미국으로부터는 고기능성·차

별화 소재 및 고급 패션의류를 중심으로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한국, 대만으로부터는 낮은 수입증가에 머물렀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첨단 산업용 섬유를 중심으로, EU로부터 고급 천연섬유소재 및 패션의류를 중심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증가율은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에 이탈리아로부터 각각 24.9% 및 44.0%, 미국으로부터 각각 25.9% 및

24.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 중저가·범용 섬유소재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중국제품에 대한 이들 국가 제품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증가율은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에 태국으로부터 각각 37.0% 및 29.8%,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56.7% 및 31.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고기능성·차별화 직물과 첨단 산업용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대만과 한국으로부터는 기능성·박지 화섬소재를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다.

### 3.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들의 경합관계 분석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중국시장에서 대만, 일본,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와

높은 수출경합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력 수출품들의 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섬유업계는 중국시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 수출은 2005~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 감소했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에 15.5%에서 12.4%로 3.1%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들과의 경합관계를 살펴보고 우리 업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 대만, 일본, 태국 등과 높은 수출 경합관계

국내 섬유산업은 중국시장에서 대만, 일본,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와 높은 경합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만과 주력 수출품을 중

〈표 3〉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의 수출경합도 추이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대만	0.6649	0.6478	0.6177	0.6298	0.6489	0.6232	0.6208
한국-일본	0.4772	0.5459	0.5471	0.5724	0.5949	0.5781	0.5703
한국-태국	0.3873	0.3912	0.4502	0.4841	0.4136	0.3716	0.3882
한국-홍콩	0.3763	0.3480	0.3405	0.3202	0.3168	0.3196	0.3153
한국-인도네시아	0.2020	0.2141	0.1927	0.2000	0.1990	0.1713	0.2156

자료 : KOTIS Database(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주 : 수출경합도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은 경쟁관계가 높아지는 반면, 0에 가까울수록 경쟁관계가 낮아진다는 의미.

〈표 4〉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의 품목별 수출경합도 비교

	한국-대만		한국-일본		한국-태국		한국-홍콩		한국-인도네시아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인조섬유원료	0.743	<b>0.678</b>	0.237	0.338	0.749	<b>0.792</b>	0.496	0.218	0.506	0.070
모사	0.735	<b>0.733</b>	0.812	<b>0.729</b>	0.629	0.360	0.769	0.590	0.416	0.155
면사	0.380	0.364	0.527	0.386	0.53	0.321	0.440	0.199	0.710	<b>0.756</b>
화섬장섬유사	0.505	0.458	0.496	0.403	0.445	<b>0.637</b>	0.425	0.189	0.487	0.340
화섬방직사	0.503	0.373	0.703	0.278	0.503	0.155	0.595	0.290	0.561	0.360
견직물	0.785	<b>0.648</b>	0.913	<b>0.753</b>	0.000	0.295	0.823	<b>0.735</b>	0.422	0.000
모직물	0.701	0.497	0.745	<b>0.876</b>	0.140	0.188	0.689	<b>0.819</b>	0.135	0.429
면직물	0.655	0.528	0.621	0.561	0.548	0.343	0.487	0.288	0.380	0.219
화섬장섬유직물	0.770	<b>0.760</b>	0.657	<b>0.776</b>	0.579	0.448	0.695	<b>0.719</b>	0.403	<b>0.641</b>
화섬단섬유직물	0.708	<b>0.827</b>	0.680	<b>0.579</b>	0.348	<b>0.685</b>	0.566	0.540	0.297	0.179
편직물	0.738	<b>0.776</b>	0.724	<b>0.551</b>	0.668	0.747	0.609	0.457	0.624	0.398
부직포	0.568	<b>0.619</b>	0.580	<b>0.689</b>	0.348	0.340	0.577	0.541	0.348	0.282
파일처리직물	0.778	0.391	0.538	<b>0.450</b>	0.760	0.079	0.541	0.252	0.124	0.270
세폭직물	0.831	<b>0.847</b>	0.905	<b>0.931</b>	0.255	<b>0.776</b>	0.623	0.591	0.807	<b>0.759</b>
타이코드직물	0.647	0.338	0.783	<b>0.835</b>	0.932	0.421	0.475	0.108	0.925	0.506
표면처리직물	0.859	<b>0.826</b>	0.812	<b>0.941</b>	0.729	<b>0.664</b>	0.891	<b>0.732</b>	0.431	<b>0.651</b>
편물제의류	0.636	0.361	0.607	0.524	0.336	0.465	0.310	0.399	0.546	<b>0.593</b>
직물제의류	0.685	0.310	0.686	0.431	0.229	0.336	0.183	0.345	0.627	0.423
생활용 섬유제품	0.326	0.200	0.380	0.292	0.035	0.112	0.265	0.290	0.093	0.118
섬유산업 전체	0.665	0.621	0.477	0.570	0.387	0.388	0.376	0.315	0.202	0.216

자료 : KOTIS Database(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심으로 가장 높은 경합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경합도지수가 2010년 현재 0.621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과의 수출경합도는 대만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 수출경합도지수가 2000년 0.477에서 2005년 0.546으로 높아진 데 이어 2010년 현재 0.570으로 더욱 상승하였다. 인도네시아와의 수출경합도도 2000년(0.202) 이후 낮은 수준에서나마 상승하여 2010년 현재

0.216을 기록하였다. 태국과의 수출경합도는 대만,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0.388)이며, 특히 편직물, 화섬장섬유사, 화섬원료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높은 경합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쟁국들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분야는 세폭직물, 표면처리직물, 화섬장섬유직물, 편직물, 화섬단섬유직물, 모직물, 부직포 등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들 품목들의 5대 주요 경쟁국들과의 평균 수출경합도지수는 2010년 현재 0.79~0.56대로 높은 수준이다.

경쟁국들과의 수출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모직물, 세폭직물, 화섬단섬유직물, 화섬장섬유직물, 표면처리직물, 부직포 등 주력 수출주력 분야이다. 모직물의 경우 5대 주요 경쟁국들과의 평균 수출경합도지수가 2000년 0.482에서 2010년 현재 0.562로 16.6% 상승하였는데,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및 태국과의 수출경합도가 상승하였다. 세폭직물의 경우 평균 수출경합도지수가 같은 기간에 0.684에서 0.781로 14.1% 상승하였는데, 일본, 대만 및 태국과의 수출경합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인도네시아와 홍콩과도 높은 수준이다. 화섬단섬유직물의 경우 평균 수출경합도지수가 같은 기간에 0.520에서 0.562로 8.1% 상승하였는데, 대만, 태국과의 수출경합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일본, 홍콩과도 높은 수준이다. 화섬장섬유직물의 경우 평균 수출경합도지수가 같은 기간에 0.621에서 0.669로 7.7% 상승하였는데, 일본, 홍콩 및 인도네시아와의 수출경합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대만과도 높은 수준이다. 표면처리직물의 경우 평균 수출경합도지수가 같은 기간에 0.744에서 0.763으로 2.5% 상승하였는데, 일본 및 인도네시아와의 수출경합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대만,

홍콩 및 태국과도 높은 수준이다.

주요 경쟁국들과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대만과의 경합관계는 세폭직물, 화섬단섬유직물, 표면처리직물, 편직물, 화섬장섬유직물, 모사, 화섬원료, 견직물, 부직포 등이 0.61~0.85로 높은 수준이고 2000년대에 경합관계가 높아진 품목은 화섬단섬유직물, 세폭직물, 부직포, 편직물 등이다. 일본과의 경합관계는 표면처리직물, 세폭직물, 모직물, 타이어코드직물, 화섬장섬유직물, 견직물, 모사, 부직포 등이 0.68~0.94로 높은 수준이고, 2000년대에 경합관계가 높아진 분야는 표면처리직물, 타이어코드직물, 세폭직물, 모직물, 화섬장섬유직물, 화섬원료, 부직포 등이다. 태국과의 경합관계는 화섬원료, 세폭직물, 편직물, 화섬단섬유직물, 표면처리직물, 화섬장섬유사 등이 0.63~0.80으로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와의 경합관계는 세폭직물, 면사, 표면처리직물, 화섬장섬유직물, 편직의류 등이 0.59~0.80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폭직물, 표면처리직물, 화섬장섬유직물, 화섬단섬유직물, 모직물, 부직포 등 우리의 주력 수출분야가 중국시장에서 경쟁국들과의 경합관계가 높은 수준이며,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가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 섬유산업, 중국시장 점유율 지속 하락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 일본, 홍콩,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이 중국 섬유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아시아 4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미국은 첨단 산업용 섬유류, 이탈리아는 고부가가치 천연섬유소재 및 고급 패션의류를,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범용 화섬소재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고기능성·차별화 직물과 첨단 산업용 섬유제품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만은 중국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화섬소재분야는 중국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능

성·경량소재를 중심으로 일본, 대만에 이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높은 수출 증가와 함께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가 1997년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였고 2001년부터 대만, 일본 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20.3%에서 2005년 15.5%로 하락한 데 이어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에 각각 12.4% 및 11.8%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저가·범용품의 경우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와 경쟁 심화로 시장잠식을 겪고 있고, 고부가가치 시장의 경우는 신기술·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력 미흡 등으로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주요국들의 중국 섬유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 %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상반기
한 국	20.3	15.5	13.8	13.0	12.8	12.4	11.8
대 만	21.5	18.2	16.7	15.1	15.3	14.6	14.1
일 본	22.8	20.2	18.3	18.7	17.7	16.8	16.2
미 국	1.7	3.4	4.0	4.8	4.7	4.9	5.1
이탈리아	1.4	2.6	3.4	4.3	4.0	4.1	4.8
태 국	0.9	1.9	1.7	1.9	2.0	2.3	2.3
인도네시아	1.4	1.3	1.1	1.2	1.4	1.8	1.8

자료 : KITA Database(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표 6〉 주요국들의 품목별 중국 섬유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 %

	한국		대만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화섬원료	29.2	10.8	16.6	11.9	24.0	21.6	3.2	3.9	0.5	2.5
섬유사	12.0	6.2	22.7	15.4	7.2	5.8	1.8	2.6	4.7	3.4
천연섬유사	3.2	2.2	4.6	7.3	3.2	1.1	1.9	1.9	4.4	2.4
화섬장섬유사	24.8	13.7	42.2	33.3	10.9	14	1.9	4.0	5.4	2.4
화섬방직사	6.0	7.5	27.0	10.7	7.5	7.3	1.4	2.8	4.1	14.2
직물	23.2	17.6	24.4	18.5	26.7	24.0	0.4	1.5	0.8	0.8
견직물	18.5	11.9	1.8	0.6	29.0	12.1	0.0	0.1	0.0	0.0
모직물	7.0	7.8	1.2	0.6	66.6	41.9	0.0	0.0	0.0	0.0
면직물	7.4	6.1	9.8	5.4	32.2	21.5	0.6	0.9	1.5	1.2
화섬장섬유직물	28.4	21.8	31.8	28.5	26.8	29.9	0.4	2.8	0.5	0.5
화섬단섬유직물	23.9	23.4	17.9	13.7	37.4	35.1	0.7	1.1	1.8	2.4
편직물	28.3	20.9	30.4	23.0	11.1	16.5	0.2	1.2	0.1	0.7
기타 직물	31.9	19.4	36.1	20.4	16.2	22.1	0.4	1.5	0.5	0.5
의류	4.7	6.0	3.1	1.3	26.5	5.2	0.1	2.3	0.3	1.7
기타 섬유제품	24.2	10.9	14.2	6.8	25.7	21.2	1.0	4.8	0.2	1.9
섬유소재	21.5	13.3	23.3	16.8	22.4	18.0	1.0	2.1	1.5	1.8
섬유산업 전체	20.3	12.4	21.5	14.6	22.8	16.8	0.9	2.3	1.4	1.8

자료 : KOTIS Database(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주요 품목별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화섬장섬유직물은 대만,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태국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2006년 20.5%에서 2010년 현재 21.8%로 1.3%포인트 상승하였다. 화섬방직사는 비스코스레이온사와 재생·반합성 복합사·케이블사를 중심으로 2000년 6.0%에서 2010년 7.5%로 상승하였다. 화섬단섬유직물은 염색·날염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직물과 염색·날염한 재생·반합성 직물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23.4%)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편직물의 경우 2010년 현재 20.9%로, 대만(23.0%)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폭편직물은 일본과의 경쟁이, 탄성, 경편 및 환편직물은 대만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모직물은 코움한 모직물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3위(7.8%)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2년 13.1%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면직물의 경우 화섬 혼방 면직물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3위(6.1%)를 기록하고 있지만, 파키스탄, 인도 등 면화 생산국들이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잠식하여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화섬장섬유사의 경우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폴리에스테르 강력사와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사는 2010년 현재 41.6% 및 43.3%로 높은 수준이다. 견직물은 2010년 현재 11.9%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탈리아가 높은 대중 수출증대와 함께 중국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1.6%에서 2010년 현재 10.0%로 6.3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중국기업들이 이탈리아에 진출하여 역수입을 크게 늘린 데 기인한다.

#### 4.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업체들에 기회와 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업계는 경쟁국은 물론 후발 개도국들

과의 경쟁 심화로 중국시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 개도국들이 일본, 대만 등지로부터 화섬소재분야의 외자유치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수출을 확대하면서 중저가·범용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이 1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질적 고도화 정책도 우리 섬유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도 차별화 소재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도 중국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신기술·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력 미흡 등으로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섬유산업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을 극복하고 대만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류용 섬유소재의 경우 극세사, 고신축사, 경량 복합사, 경량·박지직물, 텍스타일 디자인 직물 및 고기능성 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복합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 확대

를 통해 중국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산업용 섬유의 경우 녹색성장시대 도래에 대비해 탄소섬유, 초고분자량 PE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 초경량·고성능화용 섬유의 원천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초경량·고성능화용 탄소섬유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원료(프리커서)-탄소섬유-중간재(프리프레그)-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일괄생산공정을 갖춘 탄소밸리를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중국은 탄소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 슈퍼섬유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개발단계에 머물며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중 양국에서 개최되는 섬유패션

전시회(한국 PIS, PID, 중국 Chic, InterTextile 등)에 상대국 바이어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즉, 국내에서 개최되는 섬유패션 전시회에 중국 바이어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홍보 및 마케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검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중소 섬유업체들 상당수는 제품의 품질 수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제품 납품 시 품질 미흡에 따른 바이어들의 클레임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내셔널 브랜드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국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화할 필요가 있다. **KIET**